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이종원 선임연구위원

Vol.10 2013. 06.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개요 ▶▶▶

| 조사목적 |

- ▶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실태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 조사내용/조사대상 |

- ▶ 조사내용 : 시민적 지식과 자아인식, 시민적 가치인식과 태도, 시민적 참여와 행동의사 등
-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 단위 집단조사
- ▶ 모 집 단 : 2012년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
- ▶ 표집방식 : 2011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한 층화집락표집
- ▶ 최종표본 : 총 5,568명 (중학생 3,011; 인문고 1,975; 전문고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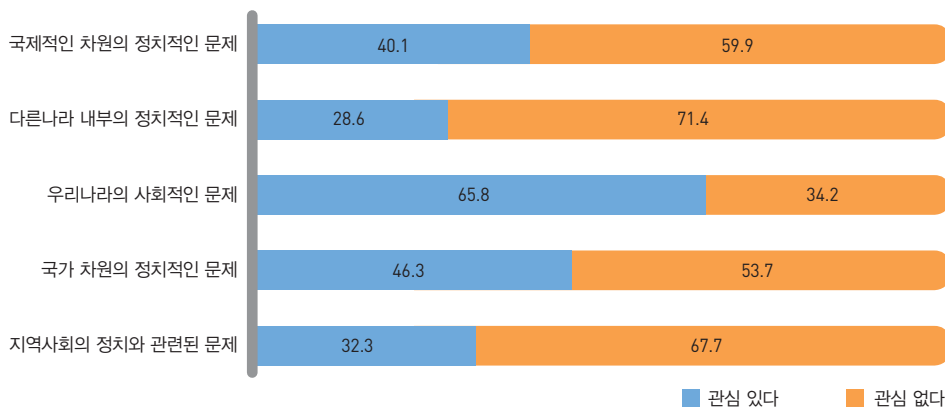
| 조사기간 |

- ▶ 2012년 5월 24일 ~ 7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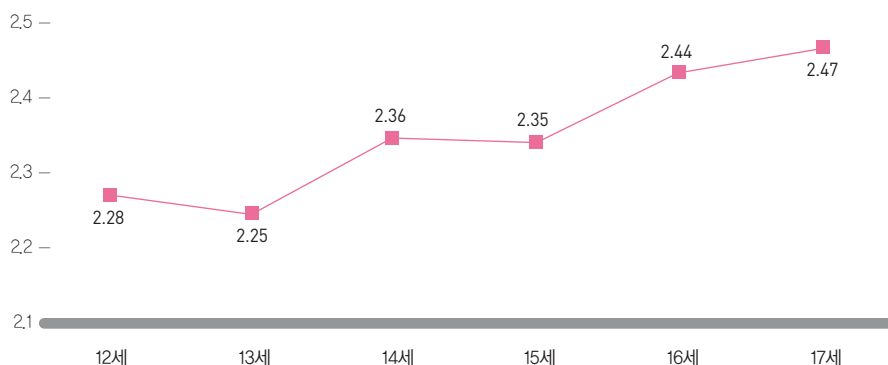
정치·사회 문제 관심도



- 청소년들이 국내·외의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두 5가지 문항에 걸쳐 조사함.
-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65.8%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가/지역사회/국제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음. 청소년들은 정치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또한 국제적인 차원보다는 국내의 정치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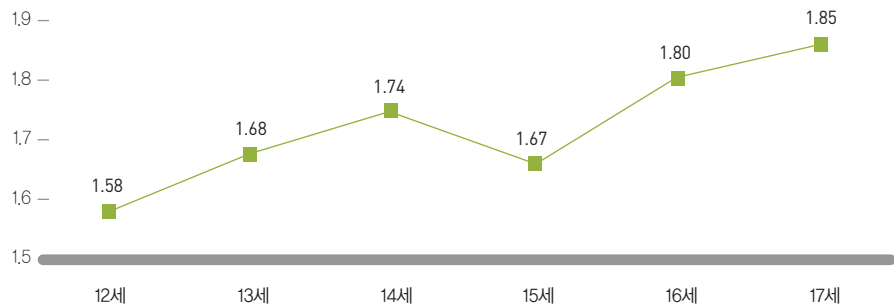
- 청소년의 연령과 정치·사회문제 관심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 즉,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국내·외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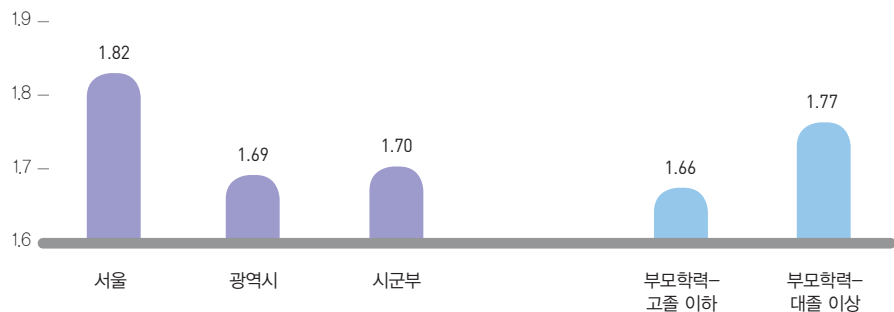
정치·사회문제 대화



- 정치·사회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청소년들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자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지를 모두 4가지 문항(“정치·사회 문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한다” 등)에 걸쳐서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연령은 정치·사회 문제 대화의 빈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 앞서의 응답결과와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부모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는 빈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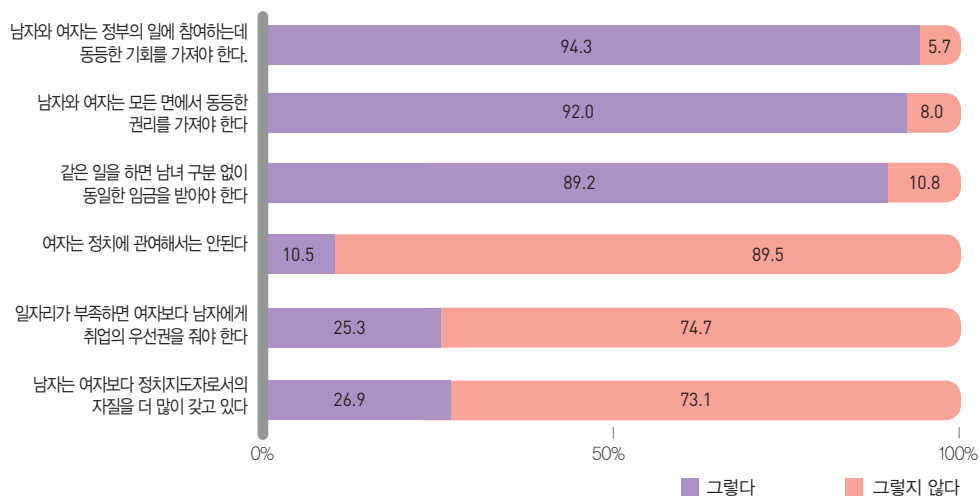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정치·사회문제 대화빈도는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음.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시군부 청소년들보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부모 중 한명 이상이 대졸 이상)이 낮은 집단(부모 모두 고졸 이하)보다 평소에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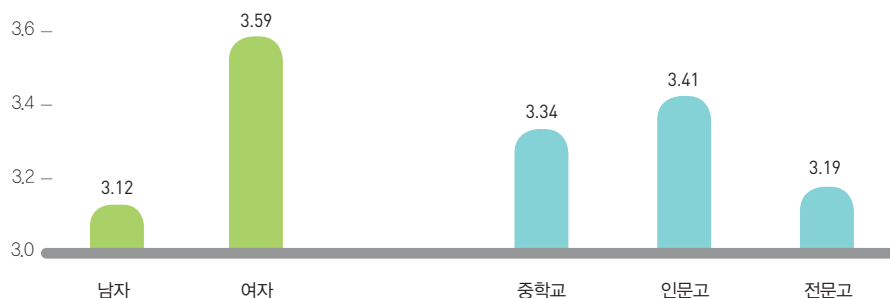




-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두 6가지 문항에 걸쳐서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남녀간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 부여 등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9할 정도가 찬성한 반면, 부정적인 진술에 대한 찬성응답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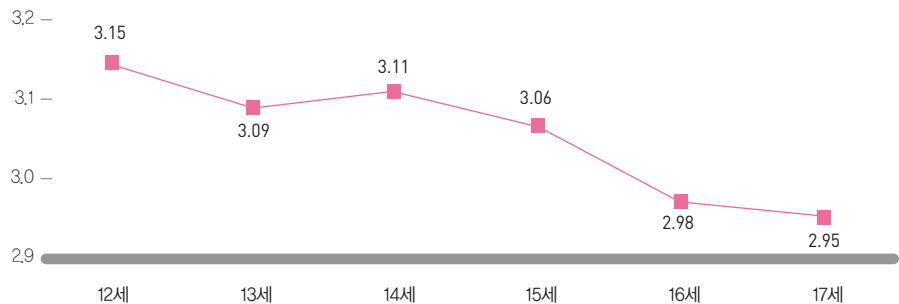
- 양성평등에 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는 성별 ·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성별로는 여자의 양성평등 지지도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 한편, 교급별로는 중학생, 인문계 고교생과 비교하여 전문계 고교생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서, 양성평등에 대하여 전문계 고교생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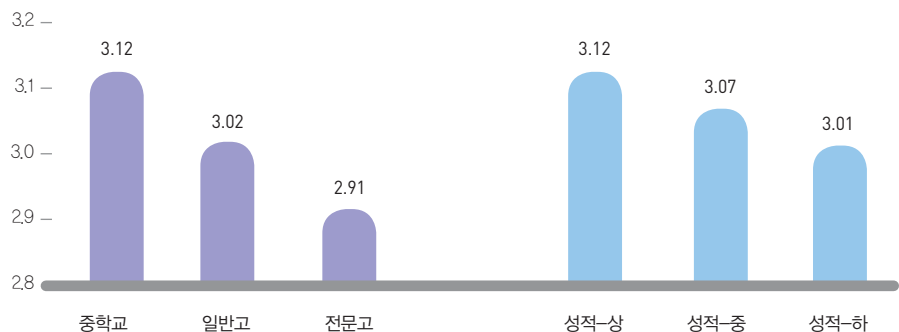
이주민 평등관



-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도 점차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이주민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움. 이주민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두 5가지 문항(“이주민들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연령과 이주민 평등의식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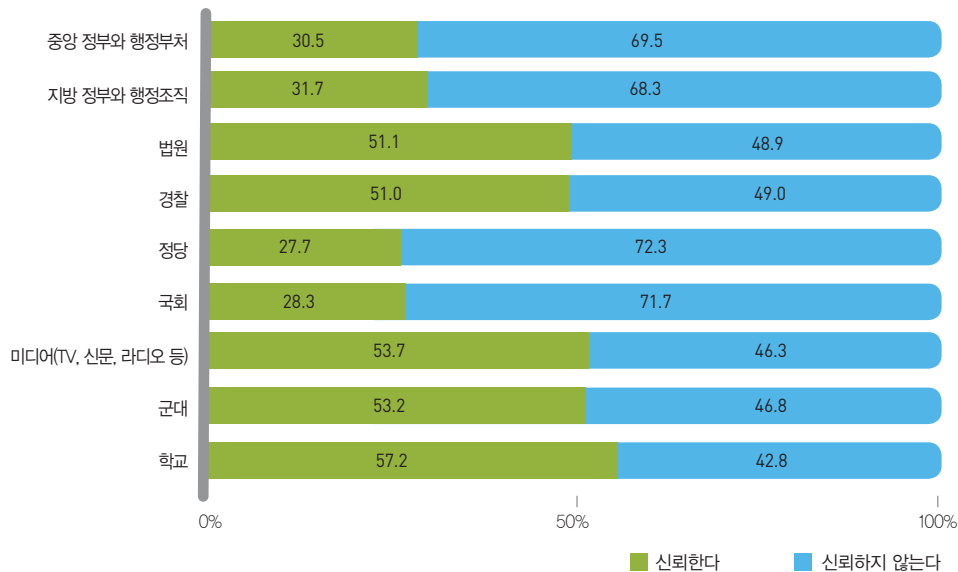
- 이주민에 대한 평등의식은 교급과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고교생 중에서는 전문고 학생이 인문고 학생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은 수준이었음.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주민 평등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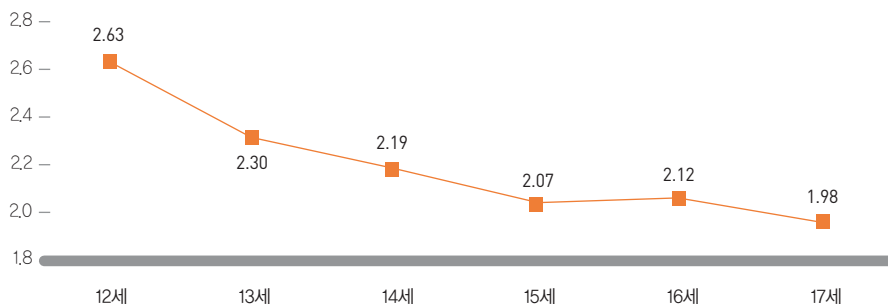
사회제도 신뢰도



- 사회내의 다양한 제도, 조직, 기관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9가지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교가 57.2%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미디어, 군대, 법원, 경찰의 순이었으며, 중앙/지방 행정조직,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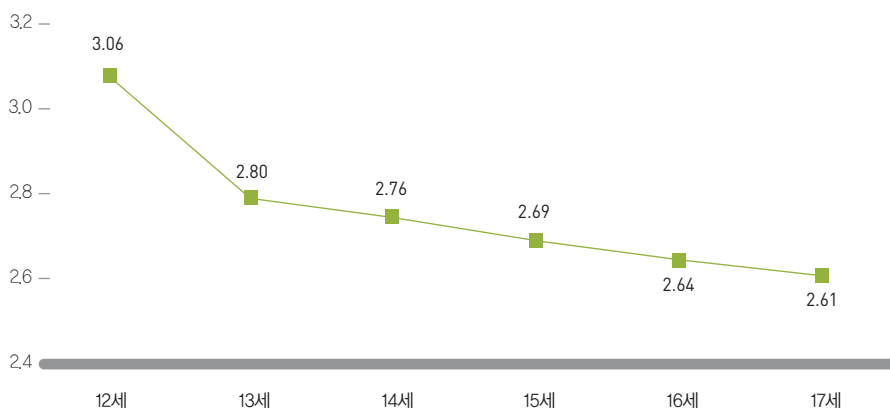
- 연령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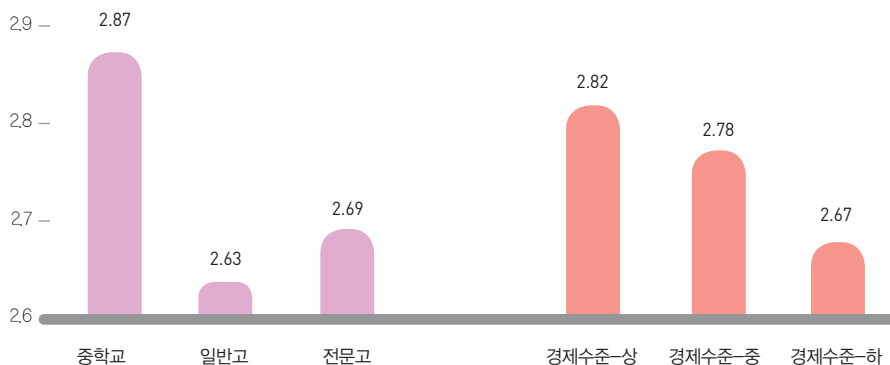
국가에 대한 태도



- 우리나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부심 · 존중감 · 애착의 정도를 모두 7개의 문항(“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에 걸쳐서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연령과 국가에 대한 태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나이가 들수록 국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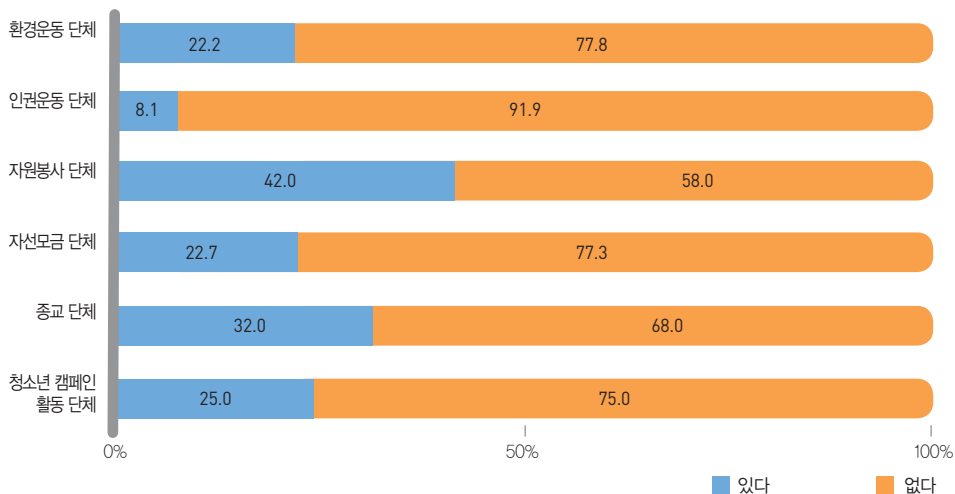
- 국가에 대한 태도는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고교생 중에서는 전문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국가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음.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일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 · 존중감 ·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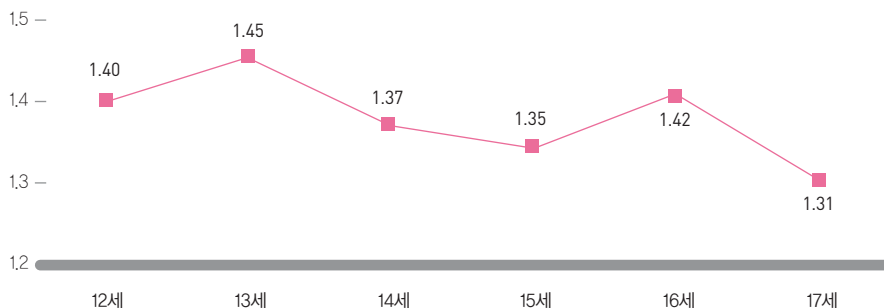
공동체 참여활동 경험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두 6가지 항목에 걸쳐서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2.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교단체 활동(32.0%), 청소년 캠페인 활동(25.0%) 등의 순이었음.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부 반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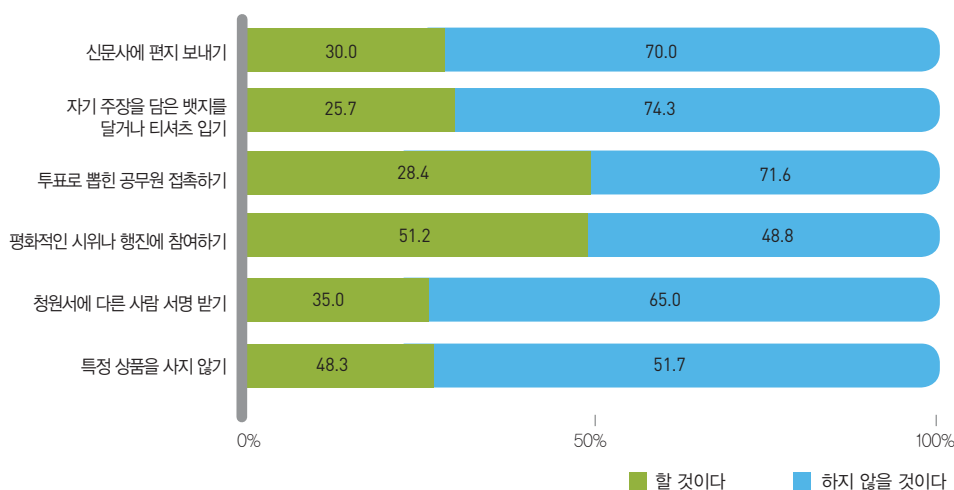
- 청소년의 연령과 공동체 참여활동 빈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교급별로 1~2 학년 시기에는 증가하지만 3학년 때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이것은 중3(14세), 고3(17세)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서 입시 준비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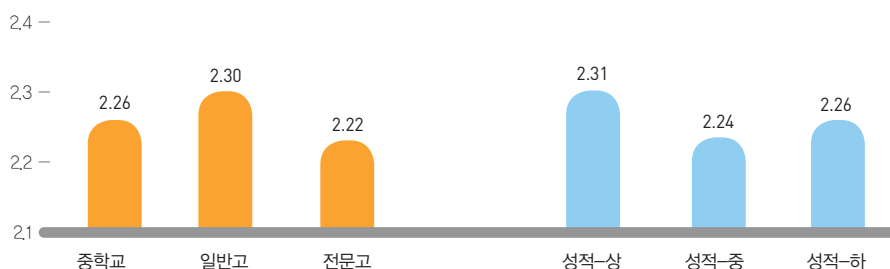
장래의 합법적 항의행동 의사



- 자신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유형의 정치·사회적 항의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모두 6가지 문항에 걸쳐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 특정 상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에, 자기 주장을 담은 배지/티셔츠 착용하거나, 공무원과 접촉할 의사가 있다는 청소년은 3할 미만의 소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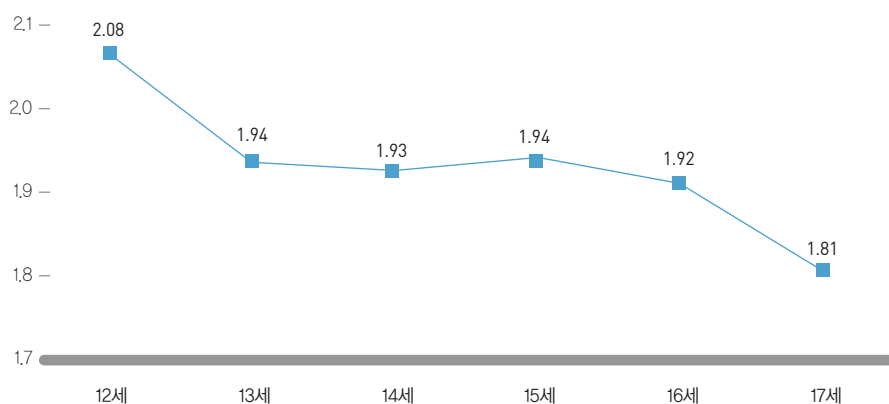
- 응답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교급과 학업성적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음. 인문계 고교생의 항의행동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한편, 전문고 학생들은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학업성적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항의행동 참여의사가 중·하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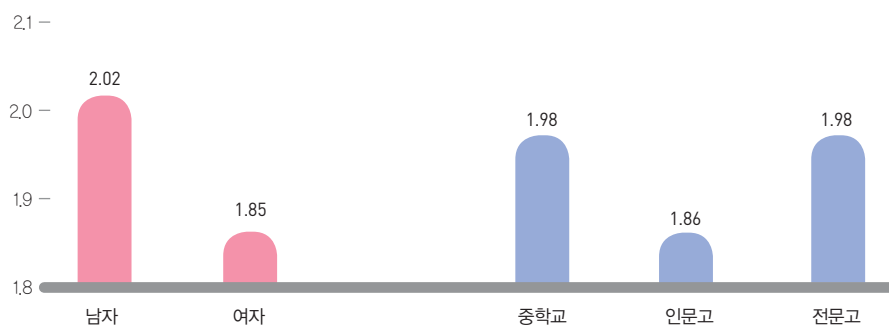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 의사



- 앞으로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4개 문항("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등)에 걸쳐서 조사하였음.
- 응답결과를 보면, 연령은 정치활동 참여의사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참여의사는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남자의 정치활동 참여 의지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전문계 고교생에 비해 인문계 고교생의 정치활동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